

# 광우병 파동을 지켜 보며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요**즘 시중에 고기를 먹으러 가보면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다고 한다. 정말 고기집에 가면 예전에 그렇게 인기 많던 소고기를 굽고 있는 광경을 보기는 힘들고 돼지목살이나 삼겹살을 굽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이유를 물어 보면 걱정이 된다고 한다. 걱정의 원인은 바로 광우병.

전세계가 지금 광우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 공포는 전유럽을 휩쓸었고 전세계에 광우병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나타나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는 치명적 뇌질환이 광우병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은 인간에게 병의 공포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운명까지도 바꾸려고 하고 나라끼리 분쟁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우병과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 수 명의 장관들이 사임을 했고 캐나다와 브라질은 소고기 수출과 관련해 무역분쟁 일보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광우병 파동을 지켜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사료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 사료를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인간의 역사는 신체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의 무서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 시작한 후에 인간의 역사는 구속과 속박의 연속이었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물론 자신의 목숨에 대한 처분권도 자신이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런 불합리한 과정을 시정하려고 싸워온 과정이 인간의 역사인 것이다. 그런데 눈을 돌려 소를 보자. 인간은 자신들의 안정적 먹이확보를 위해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런대로 넓은 장소에서 풀을 뜯었으니까. 상

황은 흘러 인구가 늘고 더 많은 고기가 필요하자 인간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움직임을 줄이고 짧은 시간에 소를 키우고자 한 정된 장소에 소를 밀어 넣고 강제로 인간이 만든 먹이를 먹이기 시작했

다. 여기에 한술 더떠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의 뼈나 내장으로 만든 먹이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의 원칙이 자유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신과 소에게 이중의 기준을 가지고 다가간 것이다. 그것도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자연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가르쳤다. 서로 어울려 돕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게 자연이 준 교훈이었다. 이것을 인간이 지키지 못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군림하려고 했지 만물의 영장이기에 부여된 의무를 잊어 버린 것이다. 자연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는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자연의 존재들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존재 이전의 권리인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포함된다. 광우병 파동을 지켜 보며 인간이 과연 언제쯤 이런 의무를 깨닫고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 진다. **이영우**

